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나라사랑' 독도에 울려 퍼지다

전주매일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음 5월 13일) 제329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 적극 공략 나서

임상규 행정부지사, 예산실 핵심 라인과 만나

전북 공약사업 · 주요 예산사업 등 반영 건의

전북도는 내년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재부를 찾아 전북지역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설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 실국장을 중심으로 매주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설득 활동을 전개한 데 이어, 지휘부는 미온적 사업과 대규모 현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기재부 예산실 국 · 과장을 차례로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먼저 임 부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주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 ·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농업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농작업 시스템 실증 · 플랫폼 구축 ·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문화 · 체육 · 관광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전북을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안 반영을 건의했다. 후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반영도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 핵심 기반 사업인 도로 · 공항 · 철도 건설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화를 위해 정부안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실현을 위해 안정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보상비 및 공사 착수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과 새만금지역 광역 접근성 개선과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기재부 대응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정부예산안 최대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사진 왼쪽)는 29일 기재부 예산실 국 · 과장을 차례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도내 해수욕장 내달 7일 동시 개장… 전북도, 안전사고 예방 총력

전북도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등 도내 8개 해수욕장이 7월 7일에 동시에 개장해 8월 15일까지 운영하며,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도는 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각종 입수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안전 관리자 지정 여부, 안전시설 비치 여부, 수질 및 백사장 등 관리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 160여 명과 안전감시탑, 인명구조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배치한다.

아울러 해경,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 및 시 · 군별 해수욕장 지역협의회 등과 협조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파리 발생에 따른 해수욕장 쏘임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요령을 홍보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거센 장맛비에 발길 서두르는 시민들

연일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전주시 효자로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우산을 쓴 시민들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전북도내 곳곳에 많은 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북도는 고창, 김제, 부안, 익산, 전주, 완주, 정읍, 고창 8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추가로 진안과 임실, 순창에 호우주의보가 추가로 발효됐다.

이미 지난 25일 부터 많은 비가 내렸으며 기상청에서는 30일까지 100~200mm(많은곳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도는 실국 및 시군과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또 도는 하천범람,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야외 캠핑 및 계곡 야영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논 물길 정비와 같은 농업시설 정비를 위한 외출 자제도 요청했다.

한편, 25일부터 계속된 호우로 지난 26일 정읍 상동의 아파트 473세대가 정전되는 피해가 있었다. 28일에는 정읍 산내면 장금리 지방도 729호선의 시실재 터널 법면이 유실돼 임시 복구했다. 29일 현재까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나 주민대피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재훈 기자

잼버리 부지 직접 찾은 김관영 도지사

"배수대책 적극 추진을"

여름철 호우 대비 간이펌프장 등 시설 직접 점검

전세계 청소년 축제인 잼버리 성공 개최 지원 총력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주부터 장마가 본격 시작되고 29~30일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29일 배수대책 추진이 한창인 세계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관련사진 3면〉

지난 5월 두어 차례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일부에 침수가 있었고,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160mm 폭우가 계속되었으며 더욱이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7~8월에 많은 양의 강수가 내릴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한 잼버리를 위해 철저한 사전 대책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 부지 내 침수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22개 서브캠프에 30mX40m 간격의 내부 배수로 외에 추가로 간이펌프장 100개소를 설치하는 배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 설치된 간이펌프장 가동 및 운영상황을 살피고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는 잼버리 조직위 및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참석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외곽배수로 시설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으며,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남은 잼버리 준비기간 동안 잼버리 조직위,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시험가동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잼버리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